

‘야구’에 대한 패러디와 키취

다카하시 겐이치로 지음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

편식을 하는 아이에게 부모의 매가 즉효이듯이, “난 외국 소설 따위는 안 읽어” 혹은 “소설 따위는 읽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웅진출판)는 부모의 매 이상의 약효가 있을 것이다.

제목만으로 보면 야구 입문서 같기도 하고 통계책 같은 느낌도 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작가 다카하시 겐이치로의 책략은 놀라운 데가 있다.

하지만 책읽기를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 독서에 대한 ‘컬트족’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니아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데 이 책의 놀라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이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미국의 송어낚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철저히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겐이치로는 답습에 머물지 않고 한발 앞으로 나아간다.

브라우티건은 미국의 ‘송어낚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실은 미국의 이데올로기, 지나가버린 미국의 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겐이치로 역시 일본야구에 대해 우아하다느니 감상적이나 하며 한껏 치켜세우지만, 사실 그는 일본야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적인 것, 그리고 거지된 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겐이치로가 답습을 떠나 더 앞으로 나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낯설음 때문이다.

스스로 컬트족이라고 생각하는 독서가일지라도 《미국의 송어낚시》가 가지고 있는 그 낯설음을 얼마나 피할 수 있을가에 대해 생각

해본다면 그 의문은 풀린다. 사실 송어낚시를 해본 이가 얼마나 될 것이며 더군다나 미국까지 가서 송어낚시를 하다니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 진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낚시만큼 고역스러운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겐이치로는 진부한 송어낚시 대신 야구라는 익숙한 물건을 들이민다. 또한 브라우티건이 진지함에 대해 수많은 단문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겐이치로는 일곱개의 장을 통해 키취적으로 이야기한다. 겐이치로는 야구에 대한 글만 옮겨 적는 전직 야구선수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무려 두 장을 할애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영화의 주인공을 패러디하기도 한다.

그 방법은 매우 효과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화주인공을 등장시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인으로 추앙받을 카프카를 2루수 후보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지함에 경도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다. 그렇지만 결국 야구는 시작되지 않는다. 물론 그는 야구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책을 쓰지 않았지만 야구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어찌할까, 나는 책을 덮고 잠실로 LG트윈스의 경기를 보러 가야 하지는 않을까! 결국 나는 한번 더 책을 읽기로 한다.

시시한 야구 관전보다는 책을 읽는 편이 훨씬 좋다고 겐이치로가 강요하니 말이다.

박대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2동 8-608 26통 4번

사랑을 가꾸는 힘

안느 브리강스 지음 《어른들을 위한 꼬마 아니발...》

귀여운 두 꼬마가 배낭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표지 그림을 보고 나는 ‘조카 생일 선물로 꼭 알맞은 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웬걸, 어떤 책일까 살짝 들여다본 후에 나는 그만 나를 위해서 한권을 더 사고야 말았다.

그저 그런 가벼운 내용의, 어린이를 위한 동화이겠거니 하는 내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어른들을 위한 꼬마 아니발의 7가지 이야기》(영인문화사)는 스스로 동양산 측백나무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소년 스위티와 잉카에서 온 다섯살짜리 꼬마 아니발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을 그리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서로를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가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이다. 하지만 소설의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스위티가 프랑스인이 아니라 독일인이나 일본인일지라도 상관없다. 가정이란 테두리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나 행복한 마음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해 오랜만에 코끝이 찡한 감동을 맛보았다. 사실 스위티라는 이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아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루에 네 마디 이상의 말은 절대 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보다는 꽃과 나무를 더 좋아하는,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스위티는 학교에서 정확을 맞았다. 수학시험에 나온 “사각형이 왜 사각형인지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에도 “맹세합니다. 이것은 사각

형이에요. 믿어주세요”라고 답을 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스위티가 말도 안 통하는 꼬마 아니발을 만났을 때 취한 행동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감동적이라고 해야 할까? 스위티는 “이미 말로서 내뱉어진 것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며 나름대로 ‘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줄 알았다. 때문에 세상 모든 죄는 말을 통해 생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니발에게 귀마개를 씌운다. 말을 배울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런 스위티의 행동이 우습기도 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우습지 않다. 나 역시 말을 통해 실수한 적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스위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니발은 결국 말을 배운다. 그렇지만 그가 내뱉는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가꾸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말이다. 그런 스위티와 아니발을 보면서 지금은 군대에 가서 없지만 어렸을 때 귀여웠던 동생을 떠올린다. 사실 동생과 무던히 싸우기도 했지만 그때 내가, 스위티가 아니발을 사랑하듯이 것처럼 동생을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두가지 결심을 했다. 하나는 이제 동생에게 잘해주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해 내 선물은 무조건 《어른들을 위한 꼬마 아니발의 7가지 이야기》라는 것이다.

김윤환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156-348 연립 202호

정직한 역사를 위한 가르침

전어욱 지음 《일본은 없다》

지난 6월 6일 대학생 60여명이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지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와타나베 마치오 전일본외상이 “한일합방조약은 평화적으로 성립됐다”고 망언한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과 일본 국회의 ‘전후 50년 결의안’ 속에 “전쟁 사죄 반성 및 부전결의”를 밝힐 것을 요구한 시위였다. 물론 이와 같은 항의는 목살 되었고, 학생들의 힘없는 돌팔매질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일본, 우리나라와는 악연이랄 수밖에 없는 얼룩진 역사를 함께 한 나라. 그러한 일본을

단호히 “없다”라고 외친 여성이 있다. 두 해에 걸쳐 두 권의 책을 통해 일본의 진짜 얼굴을 알리고자 한 저자가 전면에 이어 내놓은 《일본은 없다 2》는 비판의 강도가 드세다. 머리말에 “도저히 일본을 일본인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쓰기로 했다”고 썼을 만큼 저자의 일본에 대한 분노는 폭발할 지경인 듯 문체가 전투적이다.

중군위안부 문제는 전편에서도 적잖이 언급되었지만 일본의 태도만 힐뜰을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국제사회에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할 때이다. 저자는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제노사이드(민족말살정책)로까지 생각할만큼 분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미온책을 꼬집고 있다.

사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아직까지도 증빙자료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있을 만큼 악랄했다. 일제 식민통치 시절 우리의 민족정신을 파괴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감행했던 것이다. 영산에 쇠말뚝을 박았던 일, 좋은 땅에 철길을 내거나 건물을 세우는가 하면 매물작업까지 벌이면서 국토의 혈을 끊어 놓았다.

《일본은 없다 2》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구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도 진작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은 구차한 말이 필요없는 사안이다. 서울의 노론자위 땅, 북악산 아래에 가 본 사람은 알고 있다.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를 크게

가로막고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보면 울컥 눈물이 쏟아진다. 남의 집 대문 안에 벽돌로 높은 담을 쌓는 나라가 일본 말고 또 있었는가?

이 책은 저자의 흥분 탓인지 더러는 지나친 표현도 걸렸지만, 우리의 무딘 시야를 트이게 하는 힘있는 책이었다. 종전의 일본관련 저서들과는 너무나 판이하고 비판적이어서인지 국내 외에서 이 책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운 모양이다. 스스로 전시형의 인간이라고 매김했듯이 전어욱 씨의 지속적인 건투를 빌며,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전기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 169-1 건우APT 다동 406호